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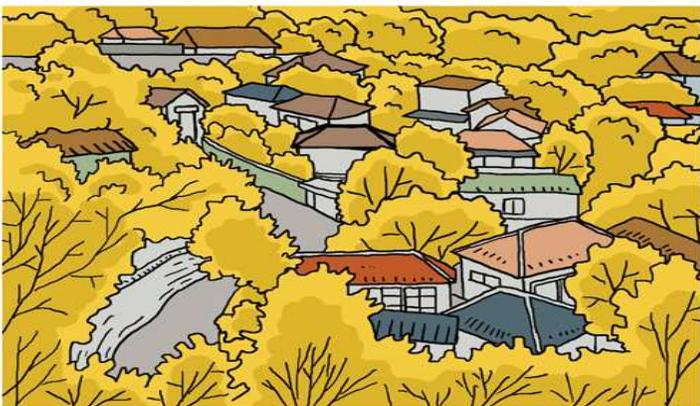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영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항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은다는 기별도 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꽃손님.
반가워라. [복음]

[제 1독서] 예제37, 12-14

[화답송] 시편130(129), 1-2, 3-4, 5와6-7, 7-8(◎7-8)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 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제 2독서] 로마8, 8-11

[복음 환호송] 요한11, 25, 26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복음] 요한11, 1-45 <또는 11, 3-7, 17, 20-27, 33-45>

성가	8시 미사	입당 118	봉헌 215 217	성체 166 500	파견 121
	11시 미사	입당 118	봉헌 215 217	성체 166 500	파견 12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사순 제5주일(4월 6일)		주님수난성지주일(4월 13일)		성삼일(4월 17, 18, 19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야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이엘리사벳(자영)	이엘리사벳(자영)	전베로니카(진영)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전안드레아(덕천)	정요한(석준)	이바오로(명국)	최다니엘(대연)	1독서:허라우렌시오
제 2 독서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서데레사(춘애)	전베로니카(진영)	김안젤라(영선)	서데레사(춘애)	3독서:심헬레나(승화)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5독서:최분도(환준)
수난복음			김안토니오(휘)	이레이몬드(창용)		구미카엘(창희)	7독서:이골룸바(정연)
			이바오로(명국)	이베로니카(경란)		김안토니오(휘)	서간:심미카엘(태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진지하게 살피고 있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사순절을 보내는 신자들에게 '세례를 회상하고,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속하고, 더 큰 열성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고, 파스카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자'고 권고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야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희망에 대한 갈망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형성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고 시작입니다. 꼭 가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은총과 자비가 풍성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죄에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얻게 되었고, (요한 4, 5-15 참조) 죄로 인한 죽음에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던 라자로를 살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표징을 보여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 11, 25)고 묻습니다.

서로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시 지나가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은 한시적인 것으로 죽지 않으려고 숨기고, 감추고 잊으려 하지만 헛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어둠)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부정하려 합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는 성형광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온갖 것으로 분장하고, 가리라고 유혹합니다. 모두가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광고판 뒤의 적나라한 현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육체적으로는 목이 마르고,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까지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유배시기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인간이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죄의 어둠으로 인해 죽음이 가득한 거대한 무덤과 같았고, 잃어버린 하느님 나라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 죄로 인한 죽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에제 37, 12)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세례의 소중함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최형호 루카 신부
인천교구 역곡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구역별 부활절맞이 대청소(4월 13일)	
1 구역	친교실 및 무대
2 구역	친교실 화장실(남,여)
3 구역	제의방 및 통로
4 구역	주차장(정문 및 후문)
5 구역	야외 성모상과 성김대건 동상 주변 정원
6 구역	대건회관 정원 및 제 1회의실
7-1 구역	성체조배실 및 제 2회의실
7-2 구역	교육관 1층 및 2층
8-1 구역	교육관 정문 밖 주변과 차고 쪽
8-2 구역	유아실 두 곳 및 통로
9 구역	성당 안 1, 2층
10 구역	교육관과 성당 사이 정원
뜨락회	친교실 밖 통로 및 주방

성목요일 감실조배 각 구역별 시간표(4월 17일 - 4월 18일)			
1 구역	10PM - 11PM	4 구역	5 AM - 6 AM
2 구역	11PM - 12AM	3 구역	6 AM - 7 AM
뜨락회	12AM - 1 AM	10 구역	7 AM - 8 AM
8-1 구역	1 AM - 2 AM	9 구역	8 AM - 9 AM
8-2 구역	2 AM - 3 AM	7-1 구역	9 AM - 10AM
7-2 구역	3 AM - 4 AM	5 구역	10AM - 11AM
6 구역	4 AM - 5 AM		

이리 나와라

말씀의 향기

때로는 세상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홀로 내팽개쳐진 것 같은 쓸쓸함 때문에 우울해져서 한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이리 나와라”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숨어서 밖에 나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저를 향해 어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생각해보면 그 쓸쓸함의 원인은 그냥 던진 한 두 마디 비난의 말이었을 뿐이었는데, 큰 수치심을 느껴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얼마나 이율배반인지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반백년을 화학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공하는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화학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고 고심하던 중, 화학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화학을 인생에 비유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화학 반응과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가 해내기 힘든 덕목을 실천하게도 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계기로 화학과 영성에 관한 책을 내게 되었고, 오늘도 묵상하는 중에 ‘균일촉매’라는 물질이 떠오릅니다. 이 촉매는 두 물질 사이에 결합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중매쟁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중매역할은 촉매가 자신이 가져야 할 전자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빈자리를 가진 물질이기에 가능합니다.

이 빈자리는 결합하려는 물질들에게 만나는 장소가 되는 한편, 두 물질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만남의 결실을 만들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물질들이 들어와 생성물 만들기를 반복합니다.

촉매의 부족함이야말로 다른 물질들을 끊임없이 불러오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촉매는 제게, 물질이라는 친구들은 자신이 부족했기에 다가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채워진 완벽한 친구에게는 해줄 일이 없지만, 오히려 부족한 친구에게는 채워줄 부분이 있어서 다가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저의 부족함을 수치스러워 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무서워 숨어버린 것은 결국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 또한 그로

인한 아픔도 품어줄 수 있기에 그들이 제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처럼, 움츠리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할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황영애 에스텔
상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 전례상식

* 수난 감실은 왜 마련하나요?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에서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사제는 미사의 마침 예식을 생략한 채 성체를 모시고 행렬하여 다른 장소에 성체를 모시는 예식을 합니다.

성체를 별도의 장소에 모시게 되면 그곳에서 성체조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체를 보관하는 장소를 “수난 감실”이라 부릅니다.

수난 감실 앞에서 행하는 방중 성체조배는 성체성사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수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묵상 시간을 많이 배려함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 수난 당일인 성금요일이 되므로 장엄한 예식을 하지 않기를 교회는 권하고 있습니다.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생활성서

레위기

성경산책

하느님, 이스라엘을 의롭고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시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며, 따라서 그 중심에 위치하는 책입니다. 오경 전체의 흐름에서 본다면 탈출기 후반부로부터 시작하여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법과 규정들을 다룹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레위기에서 아직까지 시나이를 떠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잠시 멈춰지면서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법과 규정들이 레위기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규정들 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사제직무와 관련된 내용들(8-10장), 하느님 이름을 모독한 죄(24, 10-16) 등의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등장하지만, 그 이야기들 역시 율법 규정을 설명하는 문학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의 사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관심이 단지 한 지파의 직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느님의 율법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각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될 공동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전반부에서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한 규정들과 제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정결함에 대한 규정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느님 백성이 지향해야 할 거룩함을 중심으로 사회적 차원의 법과 규정들을 전합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종교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오경의 율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Jus(세속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법)와 Fas(종교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법)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레위기는 양자를 총체적 실재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구원의지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성(聖)과 속(俗)의 구분없이 하느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온전히 구현됨을 레위기는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전하는 율법은 관념적 추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창조 사건으로부터 그들의 현재까지 되짚으며, ‘하느님의 역사’ 라는 역사의식을 통해 스스로를 거룩한 민족, 하느님 백성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종교적 정결함을 넘어 사회적 정의로움을 전제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불의에 침묵하는 집단으로 머무는 한 ‘하느님 백성’ 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결코 거룩하지 않다는 역사적-신앙적 성찰로써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스스로를 ‘새 이스라엘’ 로 정의합니다. 그 ‘새 이스라엘’ 을 향해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레위기는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새 이스라엘은 거룩합니까? 교회는 정의롭습니까?

최승정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4월 6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권미카엘(창모)
	연 이스테파노(상준)	이베로니카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민토마스(경수)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박마리아/전대석	전데레사(숙희)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조상님들	남수산나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유데레사	윤사비나
	생 유데레사	한수산나(서연)
	생 자녀들 건강	남수산나
	생 김야네스(순이)	이토마스(환)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관용)
	생 최야고보(진우)	최베네딕타(수영)
	생 김수산나(미라)	강안나(신옥)
	생 조엘리사벳(영순)	김데레사
	생 이안젤라(진익)	김데레사
4월 8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전데레사(정희)	가족
	연 전데레사(정희)	이베로니카
4월 9일 수	생 손자손녀들	김카타리나
4월 10일 목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생 유데레사	정필립(주영)
4월 11일 금	연 제일버림받은영혼	김카타리나
	생 자녀들	김카타리나
	생 대녀들 가정	김카타리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8	240	37	336
헌 금	\$514	\$1,279	\$50	\$1,843

< 교무금 > \$4,195

조상희(4) 전덕천(3-4) 김현수(1-3) 김원덕(3-4)
 강신호(1-2) 정일양(3) 유춘성(3) 유경돈(3)
 강수영(3-4) 정영언(3) 한서연(5-6) 고연석(2-4)
 이정연(4) 허순구(3-4) 조관식(2-3) 이경섭(3)
 지기재(1-3) 김영희(4) 이혜경(3) 조우송(5)
 조정학(3) 김승모(1-12) 박일신(4) 이순자(3)
 심재구(3-4) 임승원(3-4) 이건용(4) 박진영(1-4)
 박호영(4)

< 성소후원금 > \$60

고연석(2-3) 박일신(4) 박호영(4)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이재우 \$100

< 부활초/꽃봉헌 >

서춘애 \$200 박영실 \$50 유춘성 \$100

~~~~ 오늘 간식은 김정옥 그라시아/신영아 세실리아 가정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항 -

- ◆ 여행자를 위한 기도 : 오늘 미사 중
- ◆ 4월 10일(목) 평일미사는 오글랜드 교구 성유축성 미사(주교좌 성당 저녁 7시) 관계로 없습니다.
- ◆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주일 아침미사 전 7시 20분부터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이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 부활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매 미사 30분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합동판공성사 : 4월 8일(화) 저녁미사 후
- ◆ 부활봉성체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부활초/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 파스카 성삼일 전례
  - \* 4월 17일(목) : 주님 만찬미사 저녁 8시
    -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금
    - \* 수난감실 조배(주보 3면 참조)
  - \* 4월 18일(금) : 주님 수난예식 저녁 8시
    - \* 생기복구를 위한 연금
    - \*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 \* 4월 19일(토) : 부활성야 미사 저녁 8시
    - \* 부활성야 연금
  - \* 4월 20일(일) : 주님부활 대축일미사 오전11시
    - \* 오전 8시 미사는 없습니다.
    - \* 주일학교 합동미사
    - \* 각 구역별 음식 바자회
- ◆ 구역별 부활맞이 대청소 : 4월 13일(다음주)  
\* 주보 3면 참조
- ◆ 사목위원 임명  
교구청담당 : 이주황 요한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요아킴/안나회 : 4월 6일(오늘)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 구역장회의 : 4월 1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
  - \* 서예교실 : 4월 1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
  - \* 독서클럽 : 4월 1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3호
- ◆ 프란치스코 모임  
4월 6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40대 초반 ~ 50대 초반 형제님(부부동반)  
연락처 : 510-566-2175/510-789-3949
- ◆ 본당 봉사자 지문 날인(오글랜드 교구 의무사항)  
일시 : 4월 6일(오늘) 오전 9시 ~ 11시  
스케줄 : 모든 사목위원 9시 ~ 10시  
          주일학교 교사 10시 ~ 11시
- ◆ 주일학교 여름캠프(오늘부터 친교실에서 접수)  
High school : 7월 27일 - 7월 30일  
Jr. High : 7월 30일 - 8월 1일  
장소 : <http://www.goldenvalleycamp.org/>
- ◆ 청소년 기금 마련 골프대회  
일시 : 4월 26일(토) 12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 Oakland  
접수 : 8시/교중미사 후 친교실
- ◆ 교중미사가 끝난 뒤 바로 주일학교 영어미사가 시작됩니다. 성당 안으로 출입을 삼가시어 미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 영어 부활판공성사 : 4월 6일(오늘) 오전 11시 103호실
- 주일학교 부활절 달걀 장식  
일시 : 4월 19일(토) 11시~1시   장소 : 친교실
- 4월 20일 : 부활절 합동미사(영어미사 없습니다.)

**안국학교 소식**

- 4월 12일 : 북가주협의회 주최 <나의 꿈 말하기 대회>